

80년 이후 세대, 창작 음악극으로 오월 다시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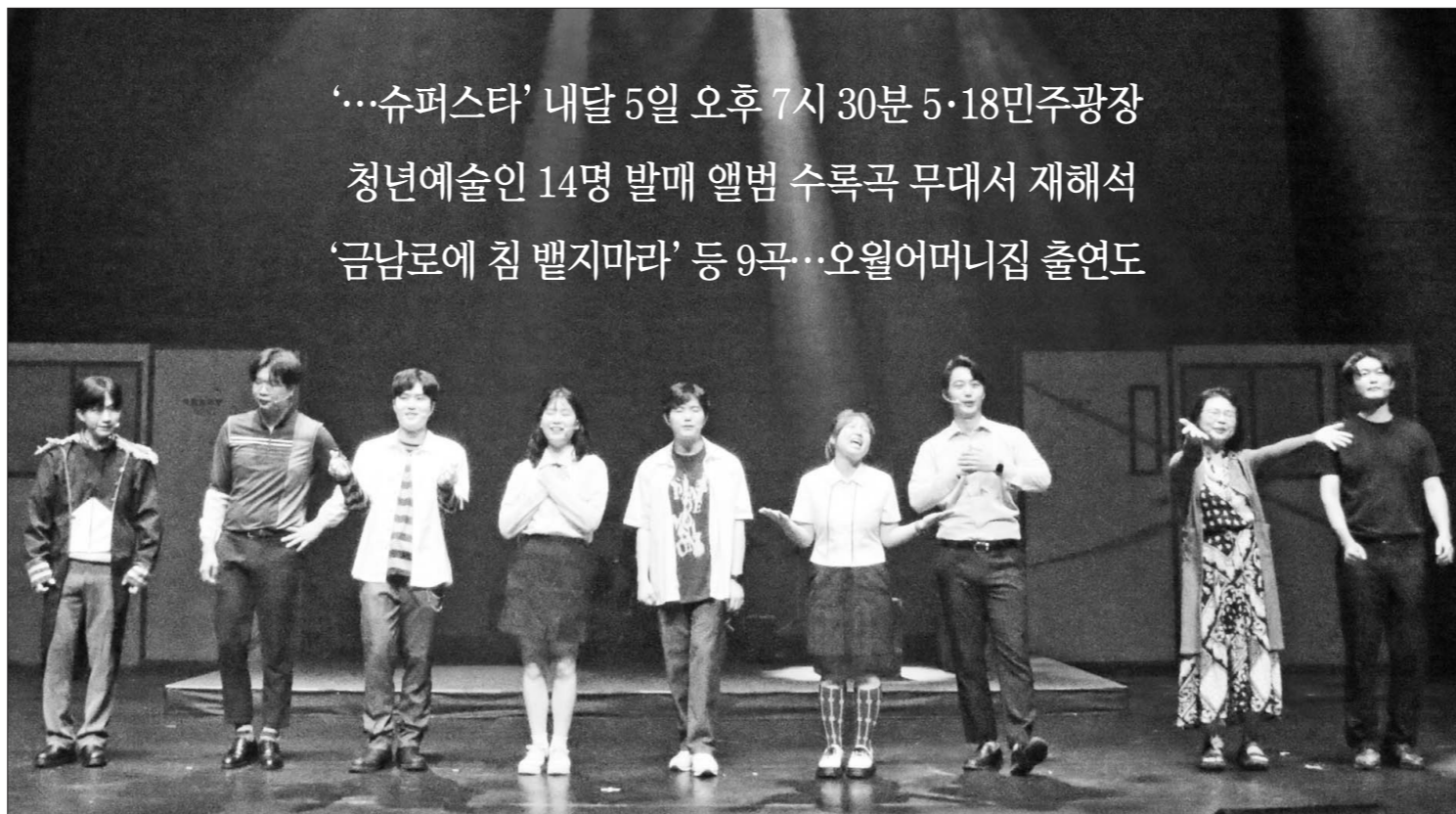
80년 이후 세대 2026 PROJECT

광주의 한 고등학교, 뮤지션을 꿈꾸는 학생
들이 모였다. 인기 가수가 꿈인 이들은 우연한
기회에 민중가요를 접하고, 1980년 5월을 기억
하는 앨범 제작에 도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앨
범 주제는 '오월 정신'. 이들은 다소 무거운 단
어 앞에서 머뭇거리다. 앨범은 무사히 완성될
수 있을까.

라이브 연주와 연극이 결합된 창작 음악극
'나는 80년 이후 생이다-슈퍼스타'는 오월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청년 세대가 그 의미를 음
악과 이야기로 재해석한다. 2026년 광주 무등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밴드부 '소리침공' 일원
들이 민중가요를 사랑하는 지도교사 박준성의
제안으로 앨범 제작에 나서면서 1980년 5월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다. 오월 정신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으로 오월을 생
각해보는 학생들이 예술동아리 폐지 공고를 통
해 일상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음악과 현실 사
이에서 고민하는 과정을 그린다.

무대에서는 청년 예술인들의 생생한 에너지를
통해 오월의 의미를 현재적 감각으로 풀어낸
예정이다. 특히 사단법인 오월어머니집이 특별
출연해 세대 간 기억을 잇는 장면을 선보이며
공연의 메시지를 한층 깊이 있게 전달한다.

작품은 지난 2020년 선보인 5·18민중항쟁
40주기 기념앨범 '나는 80년대 이후 생이다'와
2021년 제작한 두번째 앨범 '청춘 속에 두려움
없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박성연씨를 주축으로 1980년
생부터 1994년생까지 청년음악인 14명이 5·18



라이브 연주와 연극이 결합된 창작 음악극 '나는 80년 이후 생이다-슈퍼스타'가 5월 5일 오후 7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민중항쟁을 기억하기 위해 기획한 앨범이다.
첫 앨범은 기존 민중가요를 일부 편곡해 사
용했고, 두 번째 앨범은 창작곡들로 구성돼 개
별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가진 곡들은 공연의
주요곡 리스트에 포함하기보다 짧게 인용하는
방식으로 무대에 녹여낸다.
무대 날짜는 두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중심으로,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이야기와 결

합된 창작 음악극 형태로 확장시켰다. 무대서
는 '슈퍼스타'(작사 작곡 박성연)를 비롯해 '청
춘출정기'(작사 작곡 박성연), '오월 기다림'(작
사 작곡 박성연), '대한민국을'(작사 작곡 박성
연), '금남로에 침 뱉지마라'(작사 조혜수·작곡
최규용), '뭉터주'(작사 작곡 박성연) 등 같은
곡 다른 버전 포함 총 9곡이 올려져질 예정이다.
무대의 연출과 극작은 광주에서 뮤지컬·연극

활동을 하는 20~30대 청년 예술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창작뮤지컬단체 파인트리의 조혜수 대
표가 맡았다. 첫 앨범에서 '들불'을 선택해 부
른 그는 당시 광주시타투어버스를 타고 다니면
서 5·18이 실제 이뤄진 공간에서 박기순 열사
를 연기한 인물이다. 두번째 앨범 수록곡인 '금
남로에 침 뱉지마라' 작사에 참여했다. 공연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지난해 10월 광산문화예술

회관에서 첫 선을 보이기도 했다.
조혜수 대표는 음악극으로 발전한 배경에 대
해 "앨범 작업 과정에서 창작자와 이를 듣는 사
람들이 모두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생각한다. 음
악을 일부러 찾아 듣지 않는 사람들도 '80년 이
후 세대가 오월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자연
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다"며 "뮤지
컬 배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앨범
을 새롭게 풀이하고 싶었다. 뮤지컬 형식보다는
'앨범이 중심이 되는 음악극'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번 작품을 창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작업 과정에서 왜 5월은 지
금까지 기억되고 있는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도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궁금했다. 광
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솔직히 깊은 공감까
지는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아울러 그는 "오월 어머니들과 직접 이야기
를 나누고 노래를 만들면서, 광주에서 살아가
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오월정신을 따
뜻하게 받아들일게 됐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 역시 그날의 청년들의 희생 덕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내 현실 속에서 오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
떻게 살아 있는 기억으로 이어갈 것인가이다. 이
번 공연이 관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 각자의 방식으로 오월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연은 오는 5월 5일 오후 7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미술 창작 레지던시 입주 작가 본격 활동 돌입

청년예술센터, 창작·전시 연계
과정형 전시 공간 지원 작가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지역 신진 예
술인들에 대한 지원 및 기초 예술 발전의 토대
를 다지기 위해 청년예술센터 창작 레지던시 10
기 입주 작가 5명과 과정형 전시 공간 지원사업
작가 2명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창작 활동
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올 3월과 4월 각각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가는 10기 입주 작가 김명진 박래현 박의천
윤석문 이유빈과 과정형 전시 공간 지원사업 작
가 박희문 정한결 등으로 총 7명이다. 10기 입주
작가는 지난 3월 10일부터 2027년 1월까지, 과
정형 전시 공간 지원사업 참여 작가는 지난 22
일부터 2027년 1월까지 입주해 창작 활동을 이
어간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입주 작가에게 창작실 제
공을 비롯해 오픈스튜디오, 비평 및 교류 워크
숍, 문화예술 탐방, 작품 발표회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과정형 전시 공간 지원사
업 참여 작가에게는 창작과 전시가 연계된 공간
을 제공해 보다 확장된 창작 환경을 마련한다.

지난 3월 10일 입주한 10기 작가 5명은 3월
18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포트폴리오 프레젠테
이션(PT)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시립미술관 창
작스튜디오 운영 학예 연구직이 참여해 비평과
피드백을 제공했다.

참여 작가들은 각기 다른 매체와 주제를 바탕
으로 동시대적 감각의 작업을 선보인다. 김명진
작가는 외부 자극과 상처를 피부로 상징되는 스



청년예술센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창작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

편지에 투영해 훼손과 붕합의 과정을 통해 치유
의 서사를 드러내고, 박래현 작가는 화소 탄광
마을, 빈집, 이태원 외국인 등 다큐멘터리적 시
선을 기반으로 도시의 현재성과 흔적을 기록하
며 장소와 개인의 관계를 탐구한다.

또 박의천 작가는 수목 작업을 통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인간 존재를 다루며, 대형
작업과 다층적 이미지를 통해 확장된 시각 언어
를 구축한다. 윤석문 작가는 버려진 인형을 매개
로 상실과 소외, 사회적 취약성을 조명하며 회화
·드로잉·설치 작업을 통해 타자성과 경계를 탐
구한다. 이외에 이유빈 작가는 불안을 파괴적 감
정이 아닌 생존을 위한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한
국화 기반 회화를 통해 자연의 경외와 심리적 긴
장감을 동시에 드러낸다.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되는 '과정형 전시공간 지
원사업'은 단순한 창작 공간 지원을 넘어 '정주

·창작·전시'를 통합한 창작지원 모델이다. 참여
작가들은 입주 기간 내 창작 성과를 바탕으로 연
말 청년예술센터 전시실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박희문 작가는
인간 내면의 감정과 본성을 중세 기사 투구 형상
에 빗대어 시각화하는 회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
으며, 정한결 작가는 사진 매체를 중심으로 동시
대 사회의 언어와 이데올로기 구조를 탐구하고,
향후 퍼포먼스와 기록을 결합한 작업으로 확장
해 나갈 계획이다. 두 작가는 지난 21일 오리엔
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
윤익 관장은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는
역량 있는 신진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플
랫폼"이라며 "레지던시의 핵심 가치인 교류를 통
해 입주 작가들이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
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포스코광양제철소가 '포스코미술관 광양' 개관 1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전 '상상으로 엮인 지도-Where stories meet' 전을 지난 20일 개막한 가운데 방문객들이 특별기획전을 관람하고 있다.

포스코광양제철소 미술관 개관 1주년 특별기획전

'상상으로 엮인 지도' 전 6월 20일까지 포스코미술관광양



서영기 작 'Boundaries (경계)'

포스코광양제철소는 '포스코미술관 광양' 개관 1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전 '상상으로 엮인 지도-Where stories meet' 전을 지난 20일 개막, 오는 6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제철소가 포스코미술관 광양이 지역 문화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전국 각지에서 동창적인 작업세계를 확장해온 서영기, 이조흠, 임수범, 지희림 등 회화, 설치, 조각 작가 4명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종교가 높은 포스코미술관 광양의 특성을 살려 특정 장소를 여행하듯이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게 기획됐다.

서영기 작가는 본인의 경험에서 기인한 일상 속 장면들을 상상의 이미지로 재탄생 시키는 작품을 창작해왔다. 광주와 독일에서 7회에 걸쳐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03년에는 광주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인의 삶을 회화, 조형, 3D프린팅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이조흠 작가는 11회 개인전을 열었고 지난 2024년 광주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을 비롯해서 서울과 캐나다 등지에서 다수의 기획전을 개최, 관람객들과 공감 소통을 해왔다.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세상 너머의 미지의 존재들을 상상해 예술로 승화하는 임수범 작가는 2024년 광주비엔날레 광주파빌리온에 참여했으며, 서울 아라리오 갤러리 전속작가로 활동 중이다.

영국 런던과 서울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쳐 현재 동국대 부교수로 재직 중인 지희림 작가는 위로, 연민, 사랑, 행복 등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을 식물에 투영시키는 드로잉 작

품을 통해 작가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선보여 오고 있는데 2016년 금호영아티스트, 2012~2022 수평아트랩 시각예술부문 수상작가로 선정됐다.

이번 특별전은 작품 전시 외에도 작가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작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된다. 그리고 전시 기간 중 토요일은 작가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시간이 마련 된다.

이번 특별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관람할 수 있으며 해설도 들을 수 있다. 포스코미술관 광양은 지난해 4월 'Park1538광양' 개장과 함께 개관된 광양 유일의 기업미술관으로 지난 1년 순회전, 소장품전과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벌여왔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고려청자부터 과학 분석까지 '도자문화관 개관' 강연

내달 2~28일 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윤용이 석좌교수 초청

고려청자부터 과학적 분석까지 한국 도자기를 폭넓게 조망해 도자 미학을 재발견할 수 있는 강연이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홍선)은 5월2일부터 28일까지 오후 2시 어린이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도자문화관 개관 기념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한국 도자 예술의 정수를 학술적으

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5월2일에는 윤용이 석좌교수(명지대·사건)가 '한국 도자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8일에는 이종민 교수(충북대)가 '한국 도자의 혁신, 청자'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친다.

이어 14일에는 이예령 학예연구실장(국립중앙박물관)이 '해학과 변화의 아이콘, 분청사기', 21일에는 방병선 명예교수(고려대)가 '절제와 위용,



백자', 28일에는 강경인(전 고려청자박물관 연구개발실장)씨가 '흙과 불: 도자기의 과학'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이번 강연회는 도자 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 도자의 아름다움부터 청자·분청사기·백자의 고유한 매력, 그리고 도자 제작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룸으로써 대중들이 우리 도자기의 가치를 체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